

»» 한국수의정책포럼 제4차 정기포럼 개최



한국수의정책포럼 제4차 정기포럼



주제발표 중인 홍문표의원(한나라당)

한국수의정책포럼(상임대표 : 이문한, 공동대표 : 정영채, 김창섭, 강문일)은 지난 7월 6일(금) 오전 7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사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포럼을 개최하였다.

조찬과 함께한 이날 제4차 정기포럼에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의 “쌀 보다 수의·축산 우선정책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홍문표의원에게 정부수의조직 확대 및 처우개선 등 수의관련 제도개선사항에 힘써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운영회의에서는 향후 제5차 정기포럼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5차 정기포럼은 오는 9월 7일(금) 오전 7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국회의원 홍문표의원 홍성군분회·예산군분회와의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15일 저녁 7시부터 홍성군소재의 한 식당(금강냉면갈비)에서 홍문표의원(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과 홍성군수의사회(분회장 : 유주호), 예산군수의사회(분회장 : 이대열)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문표의원과 홍성군·예산군지역 회원 및 우리회 정영채회장, 대전충남수의사회 김무강회장, 홍성군 한근철부군수, 박영진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장 등 관계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홍문표의원과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내 방역 및 수의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었고, 홍문표의원은 수의·축산 발전을 위한 수의업무환경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문표의원은 우리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용전문의약품을 구

입하도록 한 것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부 및 신하단체 소식

한국동물병원협회, 삼성 치료도우미견센터와 GCDS프로그램 진행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 이승근)에서는 삼성 치료도우미견센터와 공동으로 제1차 GCDS 프로그램을 9주간 진행 하고 지난 6월 16일 에버랜드 삼성 치료도우미견센터에서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측은 이번 제1차 GCDS과정을 수료한 10명의 수료자들은 영국 캔넬 클럽에서 인정하는 인스트럭터 자격(Bronze, Silver, Gold)을 취득하여 향후 지역별 GCDS 인스트럭터로 활약할 예정이며, 2007년 10월부터 Puppy party Instructor과정 및 제 2기 GCDS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GCDS과정 수료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소식

검역원, 축산과학원과의 업무 및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 이상진)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강문일)은 지난 7월 3일(화) 축산과학원(수원) 강당에서 축산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학술 활동 및 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실험 기자재 등을 상호 교류 함으로서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1998년 농촌진흥청 소속의 수의과학연구소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되면서 양 기관 간의 협력 및 교류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의한 양 기관의 부장급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수의(獸醫)와 축산(畜産)분야가 상호 보완적 업무수행 및 연구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양 기관장은 “기술협력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의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활성화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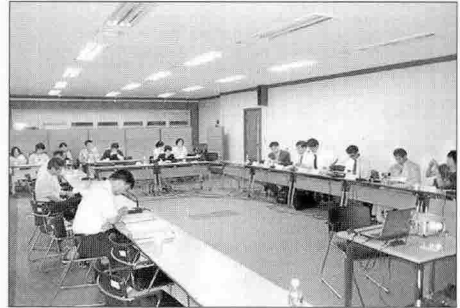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강문일원장/좌)과 축산과학원(이상진원장/우) 간의 MOU체결

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내·외 공동 대응은 물론 고가(高價) 정밀 분석 장비 공동 활용으로 분석기간 및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일본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방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강문일)에서는 일본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지난해 겨울 한·일 양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관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돗토리 대학의 이토 도시히로 교수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농림수산성 공무원 및 야생조류 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한일본대사관의 마쓰모토 류헤이 농무담당 참사관이 동행하였다.



한일 양국의 HPAI 발생상황 설명 및 토론회

일본 방문단은 올해 1월, 미야자키현의 HPAI 발생지역에서 약 70km 거리에 있는 구마모토현의 야생조류에서 H5N1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일본의 HPAI 발생도 야생조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금번 일본 HPAI 전문가 방한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자들은 그간 추진해온 상호협력협정서(MOU)의 체결, 공동연구수행, 역학조사 내용의 분석에 대한 공동 학술 발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HPAI를 비롯한 주요가축전염병 공동 대응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검역원, 동물질병진단연구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강문일)에서는 6월 15일 경기·강원지역의 병성감정기관을 중심으로 2007년 상반기 동물질병진단연구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의 야외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병성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각 기관에서 경험하였던 질병진단사례(돼지콜레라등 9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내용은 돼지콜레라, 선천성감상선종, 돼지유행성설사 등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질병진단 기술과 질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였다. 특히 요즘 농가현장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등 돼지 질병에 대한 토의와 함께 상호 교육적인 질병진단 방안들도 제시되었다”며, “현재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진단연구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전국 규모로 참여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역원, 하절기 축산물 특별 위생 점검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강문일)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에 소비가 많이 되고 변질

되기 쉬운 축산물(아이스크림, 양념육 등)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07년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8주간)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변질우려 축산물 취급영업소(유가공업소·우유류판매업소·식육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시·도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으로,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원재료 사용의 적합성,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소식

»» 한국화이자동물약품, 길고양이 TNR프로그램에 광견병 사독백신 후원


한국화이자동물약품(대표: 그레고리 오토)은 지난 6월 15일, 유기고양이를 상대로 TNR(Trap-Neuter-Return)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16개의 동물병원에 광견병 사독백신 ‘디펜서 3’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TNR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백신이 정부 주도하에 해마다 많은 개체가 접종되고 있으나, 사람에게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광견병에 대해 취약할 수 있는 유기고양이들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상 수의사로부터 백신약품의 후원이 요청되었으며, TNR프로그램의 광견병 백신 적용의 확대를 위해 금년 내에 일회 더 후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개정 입법예고

»» 입법예고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입법예고

- 농림부공고 제2007-136호(2007년 7월 2일)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서 가금·가금육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에
 계 수입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가금·가금육 등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함
-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농림부 가축방역과에 제출 

※ 법률 개정안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이나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